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2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조기 종전 가능성 재부각..미국 증시 낙폭 축소

- 미국 증시 이틀째 하락..네타냐후 조기 종전 시사에 낙폭 축소
- 연준 이어 ECB, BOE도 '매파적 동결'
- 미 재무부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검토"

Summary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흐름과 함께 전일에 이어 이틀째 하락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전해진 조기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낙폭은 축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44% 하락한 46,021.43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27% 하락한 6,606.49에 거래를 마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22,090.69에 마감. 다만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65% 반등 마감.

전일 마무리 된 미 연준의 FOMC에 이어 열린 유럽중앙은행 ECB와 영국중앙은행 BOE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는 시장에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던져줌. FOMC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없다고 말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을 시사. 유럽중앙은행 ECB 역시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중동전쟁으로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해졌으며 인플레이션에 상방, 경제성장에 하방 위험이 생겼다고 밝혀. 이와 함께 올해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3%로 낮춤. 회의 이후 시장은 ECB가 이르면 4월, 늦으면 6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나아가 많게는 연내 3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음. 영국 중앙은행 BOE 역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문구를 삭제했으며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스와팅 딩그라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공급 충격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BOE 역시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 이에 영국 국채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자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 앞서 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편 국제유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이 없으며 탄도 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하자 장 중의 오름폭을 반납하고 3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미국 내에서도 유가 진정을 위한 갖가지 노력이 이어졌는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로 해상 운송 중인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그는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략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다우 -0.44%, 나스닥 -0.28%, S&P500 -0.27%, 러셀2000 +0.65%)

특징종목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 이상 상승했고 금융도 상승.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거대 기술 기업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엔비디아가 1% 이상 하락하고 전일 압도적인 전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78%)도 최근 주가 오름 폭이 컸던 가운데 생산 확대를 위한 지출 증가 계획에 주목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하락했지만 AMD(+2.91%), 인텔(+2.55%), 램 리서치(+4.1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21%), 샌디스크(+2.44%), 웨스턴 디지털(+3.95%)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대부분 종목은 장 중 상승권에 거래를 마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7% 반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전쟁 발발 이후 내내 내림세인 금값과 은값의 급락으로 이어짐. 이는 주식 시장에서도 광산주 등 관련 종목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뉴몬트(-6.89%), 킨로스 골드(-5.28%), 쾨르 마이닝(-5.14%), 배릭 마이닝(-5.39%) 등이 하락.

반면 에너지 관련주는 여전히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상승. 셰브론(+1.43%), 엑슨 모빌(+0.36%), 코노코 필립스(1.92%), 옥시덴털 페트롤리엄(+2.06%).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에서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시사하며 조기 종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방산주는 약세. GE(-3.11%), RTX(-1.87%), 보잉(-2.33%), 록히드 마틴(-0.74%), 노스롭 그루만(-1.48%).

차량 공유 업체 우버(-1.72%)가 리비안 오토모티브(+3.80%)에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우버는 리비안에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로보택시를 최대 5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이렇게 생산된 로보택시들은 세계 곳곳에 비치돼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 둘의 협력은 현재 로보택시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 산하 웨이모와 자체 로보택시 양산을 준비중인 테슬라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 속 테슬라(-3.18%) 낙폭 확대.

'경기 풍향계'로 불리는 물류 업체 페덱스(+1.82%)는 글로벌 수요 개선과 비용 절감 영향으로 직전 분기 240억 달러 매출과 5.25달러 EPS를 달성했다고 밝힘. 이는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것이며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

치아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 제조사 얼라인 테크놀로지(+2.23%)는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주가치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에 이어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크게 상승했으나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름폭 축소, 하락 반전하기도. 2년물은 2bp 상승했지만 10년물은 1.6bp, 30년물은 4.3bp 하락함.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락.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유럽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자 다시 100선을 하회했으며 미국의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와 이스라엘 조기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달러 가치 하락

을 압박했음. 달러인덱스는 0.87% 하락한 99.21을 기록.

상품 시장에서는 WTI가 장 중 100달러 위로 치솟기도 했지만 장 후반 하락으로 돌아서 0.19% 소폭 약세 마감. 브렌트유도 오름폭 축소해 0.21% 상승으로 마감. 전쟁 발발 이후 지속 하락 중인 금값과 은값의 하락 폭이 컸음.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커지며 이자가 붙지 않는 이들 귀금속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금값은 주간 기준 약 10% 하락, 이 날도 5.9% 이상 하락. 은 선물도 장 중 10% 이상 하락, 낙폭 줄였으나 8.2% 약세 마감. 인플레 우려에 한편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맞물려 대표적 산업재 금속 구리 가격도 2% 이상 동반 약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